

## 1. 머리말

국제石油가격이 지난 2년동안 불안정하게 등락을 보이면서 국제石油시장의 구조변화에 관해 또다시 열띤 논의가 재개되었다. 왜 石油가격이 그렇게 불안정하며, 앞으로 石油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 OPEC

# OPEC와 국제 石油市場

—OPEC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가 취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과거의 국제석유시장 변화와 OPEC가 취한 대책을 토대로 하여 국제석유시장의 구조변화에 있어 OPEC의 역할을 평가해 보고, 이 평가를 기초로 1986년 이후 OPEC가 택하게 될 진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OPEC가 창설되기전 石油시장을 살펴보고, 그후 OPEC가 생산쿼터 없이 어느정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 생산쿼터를 가지고 부분적인 가격결정에 참여하던 시기, 가격체계가 붕괴되었던 시기, 끝으로 石油판매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할인판매시기등을 단계적으로 언급하고, 다음에 앞으로의 석유시장 향방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 2. OPEC 창설이전

美國에서 石油가 발견된 것은 1859년이였다. 그때부터 1975년까지 石油가격은 매우 불안정했다. 1875년부터 1911년까지 美國의 석유시장은 스탠다드 石油트러스트에 의해 통제되어 油價는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1911년 反트러스트법에 의한 美연방법원의 판결로 스탠다드 트러스트가 해체되자 石油시장은 또다시 불투명해져 그후 22년동안을 그 상태로 지속했다.

1933년 石油가격 및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텍사스 철도위원회(Texas Railroad Commission)가 설립되어 石油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 1930년대는 비교적 시장은 질서있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石油시

장은 국제화된 단계는 아니었다. 그후 194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소위 7대 메이저라는 국제석유자본이 석유시장에 등장, 石油생산·가격등을 엄격히 통제하게 되었다.

石油메이저들은 석유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여 산유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石油소비는 전대미문의 수준까지 증가된 반면, 石油탐사 활동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유부족사태가 나타나 油價는 불안정하게 되어 高油價현상으로 국제석유시장은 빠져들었다.

### 3. 石油시장의 방관자로서의 OPEC (1960-1971)

OPEC는 1960년 9월 바그다드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등 5개국에 의해 창설되었다. OPEC 결성의 직접적 동기는 메이저들이 1959년 12월과 1960년 8월 두차례에 걸친 原油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이었다.

당시의 利權협정은 이익절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인하는 그 인하액의 절반만큼 산유국의 수입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OPEC의 결성동기는 방어적인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산유국의 수입확대를 겨냥한 공격적 대안이기도 했다.

1960년대 OPEC는 대체로 국제석유시장에의 개입정도 측면에서 보면, 무명의 방관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제石油메이저들의 산유국에 대한 무리한 행동에 본격한 OPEC가 70년대에 두각을 발휘하기 시작, 석유시장의 주도권자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60년대에는 石油메이저들이 국제석유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OPEC 산유국 정부가 原油 1배럴당 받아들이는 로얄티 및 세금수입은 1960년 78센트였으며, 1968년에도 여전히 낮은 85센트에 불과했다. 당시는 공급에 비해 수요증가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메이저들이 구축한 석유시장구조는 장기적으로 보아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表-1〉 참조).

이러한 油價구조에서 石油소비는 촉진되었고, 석유탄사 및 代替에너지 개발은 침체되었다. 자유세계 소비를 보면, 1965년 하루 2,650만배럴에서 1973년에는 4,760만배럴 수준으로 경증되어 8년동안에 80%의 증가를 보

여주고 있다. 이것은 세계 전체의 GNP성장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기간동안 자유세계 전체 생산량중 OPEC의 점유율은 1960년 44%에서 1973년 67%로 증가했는데, 이같이 점유율이 완만히 증가한 것은 中東이외의 지역에서 탐사개발활동등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表-2〉 참조).

1960-1971년동안 OPEC의 협상능력(bargain position)은 다소 증가했는데, 그와같은 이유로는 독립계 석유회사들이 대거 국제석유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과 OPEC가 카르텔이라는 실체로서 명실공히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메이저와는 달리 독립계 석유회사들은 原油 공급원을 다변화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산유국들에서 石油메이저들이 누리던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메이저들의 시장 지배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틀림없다.

한편, OPEC가 카르텔로서 조직강화를 했음에도 실제 산유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수입에는 별다른 증가가 없었다. 1960년 배럴당 78센트에서 1968년에는 86센트로 증가됐을 따름이다. 그러나 1971년 2월 테헤란 협정에서 50%까지 증가되었다(정확하게는 배럴당 25-65센트임). 油價는 명목상으로는 약간 오르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소되는 현상이 60년대의 지배적인 현상이다. 石油메이저들의 제반활동, 독립계 석유회사들의 국제석유시장에 진출, OPEC의 조직강화등으로 OPEC는 강력한 협상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 4. 생산쿼터 없이 油價형성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 (1971-1981)

1971-81년기간은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의 그들이 목표로 하는 소기의 수준 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石油생산을 해온 시기이다. 1971-78년 기간을 놓고 보면, 石油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기간이었다. 다시 말해 수요증가에 의해 石油시장이 확대되었다. 73년과 74년 사이 제1차 석유위기로 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이와같은 가격폭등 충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非OPEC지역에서 석유탄사활동이 활발해졌지만, 공급에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러한 결과 OPEC의

시장점유율은 증대되었다.

시장가격이 명목가격으로 1974-1978년기간동안 소폭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실질가격으로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 주요 이유는 OPEC 산유국들이 石油생산을 현상유지 내지는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OPEC가 산유량을 감축시켰다면 石油가격은 상승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70년대에 세계 전체 소비와 잠재 생산능력간 갭이 좁혀져 19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초과생산능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OPEC 산유국들이 감산조치를 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초과생산능력이 크게 존재할 때에 비해 그 효과는 쉽게 그리고 유효하게 나타날 것이다. 많은 OPEC 산유국들이 물리적 정치적인 이유로 가능한 최대능력으로 생산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감산의 효과는 보다 바로 나타났을 것이다.

초과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으므로 한나라 혹은 많은 나라 생산량을 감축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증산으로 대응하지 않는한 감산이 실시되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시기였다. 개별 OPEC 산유국들은 산유량을 감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별 산유국들은 감산으로 高油價가 형성될 경우, OPEC 석유수요는

〈表-1〉 石油의 명목 및 실질가격 변동추이  
(1972년 달러 기준)

	명목가격	전년대비 증감(%)	실질가격	전년대비 증감(%)
1944	1.21	1	3.27	( 1.5)
1945	1.22	1	3.22	( 1.5)
1946	1.41	16	3.20	( 0.6)
1947	1.93	37	3.90	21.9
1948	2.60	35	4.91	25.9
1949	2.54	(2)	4.84	( 1.4)
1950	2.51	(1)	4.68	( 3.3)
1951	2.53	1	4.43	( 5.3)
1952	2.53	—	4.37	( 1.4)
1953	2.68	6	4.56	4.3
1954	2.78	4	4.66	2.2
1955	2.77	—	4.55	( 2.4)
1956	2.79	1	4.44	( 2.4)

	명목가격	전년대비 증감(%)	실질가격	전년대비 증감(%)
1957	3.09	11	4.75	7.0
1958	3.01	(3)	4.56	( 4.0)
1959	2.90	(4)	4.29	( 5.9)
1960	2.88	(1)	4.19	( 2.3)
1961	2.89	—	4.17	( 0.5)
1962	2.90	—	4.11	( 1.4)
1963	2.89	—	4.03	( 1.9)
1964	2.88	—	3.96	( 1.7)
1965	2.86	(1)	3.84	( 3.0)
1966	2.88	1	3.75	( 2.3)
1967	2.92	1	3.69	( 1.6)
1968	2.94	1	3.56	( 3.5)
1969	3.09	5	3.56	0.0
1970	3.18	3	3.48	( 2.2)
1971	3.39	7	3.53	1.4
1972	3.39	—	3.39	( 4.0)
1973	3.89	15	3.68	8.6
1974	6.74	73	5.87	59.5
1975	7.56	12	6.02	2.6
1976	8.14	8	6.16	2.3
1977	8.57	5	6.12	( 0.6)
1978	8.96	5	5.96	( 2.6)
1979	12.51	40	7.66	28.5
1980	21.59	73	12.10	58.0
1981	31.77	47	16.24	34.2
1982	28.52	(10)	13.62	(16.1)
1983	26.19	(8)	12.16	(10.7)
1984	25.88	(1)	11.58	( 4.8)
1985	24.03	(7)	10.41	(10.1)

〈資料〉 International Oils, 10 April 1986, Solomon Brothers Inc., New York, US.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장기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국제경제의 건전한 장기적 안정측면에서 내다볼 때, 油價의 추가적 인상은 오히려 해롭다는 인식이었다.

1978-1981 기간중 가격은 또다시 인상되었다. 이때는 소비국들이 제1차 석유위기 공급부족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비축용 석유구매에 열을 올린 반면, OPEC 산유국들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산유량을 감축했기 때문에

〈表 - 2〉 OPEC의 原油생산 추이(1960 - 83)

(단위 : 1,000B/D)

	中 東 회원국	OPEC중 中 東 점유율	기 타 회원국	OPEC 합 계	자유세계중 OPEC 점 유 율	자유세계중 중동회원 국점유율
1960	5,028	64%	2,846	7,874	44%	28%
1961	5,577	66	2,920	8,497	45	30
1962	6,110	61	3,844	9,954	49	30
1963	6,701	62	4,164	10,865	50	31
1964	7,358	61	4,724	12,082	52	32
1965	7,996	61	5,181	13,177	53	32
1966	8,876	62	5,341	14,217	53	33
1967	9,837	63	5,794	15,631	54	34
1968	10,855	61	6,805	17,660	55	34
1969	11,893	58	8,448	20,341	59	34
1970	13,229	60	8,905	22,134	58	35
1971	15,594	62	9,498	25,092	63	39
1972	17,301	65	9,410	26,771	64	41
1973	20,599	66	10,390	30,989	67	45
1974	21,234	69	9,513	30,747	68	47
1975	18,904	70	8,296	27,200	65	45
1976	21,309	70	9,249	30,558	67	47
1977	21,805	69	9,612	31,417	67	47
1978	21,013	69	9,358	30,371	64	45
1979	21,016	68	9,895	30,911	64	43
1980	17,913	67	9,028	26,941	59	40
1981	15,221	67	7,459	22,680	55	37
1982	12,137	64	6,754	18,891	49	31
1983	10,965	62	6,584	17,549	46	29

〈資料〉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가격인상이 되었다.

油價가 더한층 폭등하지 않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부족을 메꾸기 위해 산유량을 대폭 신장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우디의 증산정책은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의 대부분을 풍미하던 수급의 불균형사태는 역사적으로 1950-1970 기간중 石油메이저들의 정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당시 原油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수요는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이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OPEC 역사상 이시기 즉 생산쿼터를 보유하지 않고 국제石油가격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OPEC에게 가장 평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OPEC의 개개 산유국들은 소기의 목표에 해당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산유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둘째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각각은 과잉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규모 시장점유율이 주어져 있었다라면 그들의 石油판매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을지도 모른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을지도 모른다. 셋째, 비록 OPEC 石油수요가 감소했을지라도 OPEC의 초과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문제등이 엇갈려 비교적 완만했다. 끝으로 이 시기는 OPEC 산유국간 산유량을 할당할 정도로 사태가 각박하지가 않아 산유량 할당은 필요치 않았다.

요약해 보면 이 시기에는 OPEC 전체 혹은 카르텔내의 몇몇 회원국들이 油價지지를 위해 산유량의 통합조정을 시도한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OPEC 회원국들의 가격결정은 시장에 즉각 침투되지 않고 효과는 한참만에 나타났다.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일방적으로 油價상승을 조정 둔화시키기 위해 산유량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이와같이 OPEC는 국제石油시장가격을 완전히 결정하지 못했고, 다만 사우디 아라비아의 일방적인 산유정책으로 石油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이같은 증산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세계적으로 초과 산유능력이 크지 않은데다 국제석유시장은 대체로 팽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 5. 산유쿼터로 가격결정에 참여하던 시기 (1981-1985)

이 시기는 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石油시장에서 OPEC 石油에 대한 수요가 격감한 사실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980년 2,690만B/D 수준에서 1983년에는 1,750만B/D로 1985년말에는 1,400만-1,500만B/D 수준으로 격감된 동시에 原油가격은 대폭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原油의 공식가격이 아라비아안 라이트 기준 배럴당 1981년 34달러에서 85년 27달러로 떨어지고, 스파트 가격이 공식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OPEC 石油수요가 급감하게 되자 OPEC는 떨어지는 가격을 지탱키 위해 산유량 실링을 정해놓고 이에 따른

회원 산유국간 산유량을 할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몇몇 산유국들이 자국의 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OPEC로서는 더욱 힘겹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을 방어키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는 산유량을 쿼터당 하루 435 만배럴 이하로 감축하여 OPEC 油價구조를 지탱시켰다. 사우디의 산유량이 200 만배럴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던 때도 있었다. 사실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와같은 일방적인 감산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油價는 85년 그 이전에 더 많은 폭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 시기를 OPEC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첫째, 1979-1981 기간중 油價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OPEC 石油수요가 대폭 감소된데다 非OPEC로부터 石油 또는 非石油에너지 공급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변화는 OPEC로서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어 石油시장에는 제반 변화가 계속 일어나 시장은 불안정해졌다. OPEC가 1971-1981 기간중 산유량을 증대시켜 공급을 원활히 하여 가격변화를 사전에 조절했다면 현재와 같은 시장의 침체현상은 다소나마 완화시켰을 것이다. 둘째로 OPEC, 非OPEC 산유국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 희생을 공동으로 했다면 현재와 같은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 6. OPEC 油價구조의 붕괴 (1985-1986)

1985년 2/4분기 이후 OPEC 石油수요는 약 1,400만 B/D까지 떨어졌다. 동시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산유량은 쿼터보다 200만배럴 이상 하회하는 200만배럴 수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계시장에 넘쳐 흐르는 石油물량을 줄이는 일을 몇몇 OPEC 산유국들이 전담해야 했고, 非OPEC 산유국들은 오히려 산유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와중에서 OPEC의 다른 산유국들은 감산부담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초과공급사태가 발생했다.

石油가격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스파트原油가격의 하락, 몇몇 OPEC 산유국의 산유량 급감, 달러화 가치

하락등이 겹쳐 OPEC 산유국들은 필요재원을 가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재정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OPEC 산유국들은 非OPEC에 대한 공정한 시장 점유율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증산정책을 감행했다.

이 결과 국제시장은 공급과잉현상이 가중, 石油가격은 배럴당 8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그야말로 低油價시대가 연출되었다. OPEC 각산유국들은 비밀리에 할인판매를 자행했고, 석유판매수입을 증대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태가 발생 「구매자 시장」의 양상은 더욱 가중되었다.

## 7. OPEC의 전망

OPEC 26년 역사상 OPEC는 石油시장 특성 즉 시장여건을 무시한채 石油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것이 OPEC 석유정책의 중대한 실책이라 하겠다. 低생산 高유가정책을 추구해온 것이 OPEC 산유국들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

이론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OPEC는 산유량정책과 가격정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펴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OPEC는 산유량 수준만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결정은 시장에 맡기던가, 아니면 가격을 결정하고 산유량을 시장상황에 일인하던가 해야 한다. 이러한 주어진 명제를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OPEC가 앞으로 생존하고 카르텔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으로 OPEC가 국제석유시장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야할 행동방향과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위기에서 방황하는 OPEC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OPEC가 겪은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OPEC는 첫째로 현실성을 무시한 低생산 高유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石油절약, 代替에너지개발, 非OPEC지역에서 石油탐사개발의 강화라는 시장의 변화를 초래했다. 둘째로, 축소하여 가는 시장점유율 속에서 회원국간 산유량 할당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했다. 셋째, 原油값 지불수단이 달러貨로 되어 있으므로 달러화의 가치하락등의 변동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아울러 OPEC 석유판매 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앞으로 OPEC가 성공적인 카르텔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시장지향적인 石油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여건을 무시한 인위적인 가격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장지향적인 石油정책이 실효를 거두느냐 여부는 개개 산유국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상호의견일치를 보이느냐, 아니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OPEC의 석유정책은 앞으로의 石油수요의 향배에 달려있고, 또 石油수요는 세계경제성장, 수요의 소득 탄력성, 石油 및 OPEC, 非OPEC의 다른 에너지源의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8. 국제石油시장의 단기전망

지난 제네바 OPEC 총회에서 13개회원국중 이라크를 제외한 12개 산유국들이 原油價를 18달러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감산조치를 결정했다. 이로써 OPEC는 87년 상반기동안 전체산유량을 7.25% 감축하여 油價 인상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러나 앞으로 石油생산과 수출에 있어 75% 증가가 예상되는 이라크가 이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의 油價는 이라크의 산유량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산유국간에 배정된 생산쿼터가 엄격히 준수될 경우 油價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7-18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과잉재고의 방출, OPEC 회원산유국들의 초과생산 및 할인판매등 비정상거래가 있을 경우 油價는 14달러-16달러 수준으로 하락될 수도 있다.

이라크가 자국산유량을 이란과 꼭 같은 하루 225만배럴을 요구한 것은 이에 대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는 페르시아灣 석유수출항이 이란에 의해 파괴 또는 봉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지만, 곧 개통되는 두 개의

〈表-3〉 자유세계 石油수급 전망

(단위: 100만B/D)

	1986		1987	
	4/4	연간	1/4	2/4
소비	47.3	46.5	48.2	45.4-46.3
공급	46.7	47.3	45.7-46.7	45.9-46.8
非OPEC	28.4	28.2	28.1	28.3
OPEC	18.3	19.1	17.6-18.6	17.6-18.5
原油	17.0	17.8	16.3-17.3	16.3-17.2
NGL	1.3	1.3	1.3	1.3
재고변동등	-0.6	+0.9	-2.5*(-1.5)**	10.5**

註: \* : 86년의 과잉재고 영향으로 선진국의 올해 1/4분기에 재고방출이 증가되는 경우  
 \*\* : 선진국의 재고변동이 80-85년간 평균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출용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과 맞먹는 수준의 原油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가 산유량을 대폭 늘릴 경우, 국제石油 가격은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 보아서 OPEC는 그들이 목적인 대로 가고있는 것 같다. 12개 산유국들이 할당량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오는 2/4분기, 즉 석유소비국들이 재고보충의 시기가 되면, 油價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은 이라크의 산유량과 선진국들의 재고변화이다.

장기적으로 OPEC가 명실공히 카르텔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계石油시장이 공급초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공급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부족 현상은 적어도 1990년대에 가야만 가능하며 OPEC의 석유시장 통제력 구사는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 〈쌍용정유, 주간석유에너지정보〉

자원이 따로없다

절약이 자원이다